

하나됨과 나눔

“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

< 마태복음 6장 33절 >

- 6월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입니다.
- 어린이학교 6월여행이 6월11일(화)부터 1박2일간 경기도 용인에서 있습니다.
- 멋쟁이학교 4학년이 해외문화체험을 마치고 6월6일에 귀국했습니다. 기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멋쟁이학교 학부모모임이 6월16일(주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 6월23일(주일) 성경퀴즈대회를 앞두고 핵심구절과 예상문제를 오늘 방별로 나눠드립니다. 이번 성경퀴즈대회의 범위는 '사도행전'입니다.
- 그루터기로 올라가는 길에 도로 포장 공사를 했습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김화인 집사 (생일 감사)

이승호 집사 (오봉순 어머니 생신 감사)

강단을 꽃으로 : 정이안 학생 (생일 감사)

김정호 어머니 (진나우 귀국 감사)

신협(현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1 - 23 호

2024년 6월 9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잘 있습니까?

MBTI를 들어보셨나요? MBTI는 4가지 분류 기준에 따른 결과에 의해 사람의 성격을 16가지 중에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하는 성격유형검사입니다. 몇 년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성격이 궁금할 때 그 사람에게 좋아하는 음식, 혈액형, 색깔, 취미 등을 질문하여 파악했는데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선 MBTI가 뭐냐는 질문으로 그 사람의 성격과 사고방식, 행동유형까지 한 번에 정리하곤 합니다. 그리고 나와 잘 맞는 유형의 사람, 반대로 나와 있으면 서로 이해하고 이해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구분하여 알아가기도 전에 사람을 가리거나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MBTI는 검사할 때의 심리상태에 따라 매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고, 삶의 환경이 바뀌고 적응하며 그에 따른 성격유형도 변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MBTI가 유행하며 함께 유행하게 된 말이 있습니다. 바로 "너.. T지?" 4가지의 분류 기준 중 판단기능을 나타내는 T와 F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T와 F는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때 사고와 감정 중 어떤 것을 더 선호하는지를 나타내는 사고-감정 지표입니다. T(사고형)인 사람들이 객관적 사실에 주목하며, 분석적으로 판단하고 비판적인 사고를 한다면 F(감정형)인 사람들은 원칙에 얽매이기보다는 정서적 측면에 집중하여 사람들에게 가져오게 될 결과를 더 중요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을 당한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기보다 벌어진 일을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일 때에 좋은 말로는 냉철하다, 안 좋은 말로 차가운 사람이라며 바로 "너 T지?" 하는 말을 듣게 된답니다.

그러나 T에게도 F에게도 모두 감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보다 어떻게 잘 다스리고 표현할 수 있느냐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한 연구팀에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지난 한 주

동안 느낀 감정을 1분안에 적어보도록 했습니다. 우리도 1분안에 써볼까요? 한 주동안 어떤 감정들을 느끼셨나요? 감정 연구전문가에 따르면 이 잠깐의 테스트로 한 사람의 감정 상태를 정확히 알 순 없지만 평소에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라면 많이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 7개 이상의 감정을 쓴 사람은 평소에 대략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읽으며 살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3개 이하인 경우, 예를들어 행복, 화, 짜증 등 이런 감정을 3개 이하로 쓴 사람의 경우에는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며 사는지 일상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잘 못 읽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몇 개나 쓰셨나요?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서 아직 말을 못 할 때에 하는 감정표현은 웃거나, 울거나, 간단한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성장하여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고 표현하며 나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하고 교류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 학생들을 보면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속상한 일도 짜증난다, 화가 나는 일도 짜증난다, 창피한 일도 짜증난다고 합니다. 설레는 마음도 좋아요 라고 답하고, 뿌듯한 마음도 좋아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모습은 자신의 감정에 무뎌지도록 고된 삶을 지내온 어른들에게서도 쉽게 보이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소통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먼저 나의 감정과 생각을 잘 읽어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나의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잘 돌보시다. 그리고 내 이웃의 감정도 살펴 "쑥스럽다", "그런 말 안해도 다 안다"며 지나치지 말고, 고마운 일에 "고맙습니다" 미안한 일에 "미안합니다" 라는 기본적인 말부터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좋을 순 없겠지만 이번 한 주동안에 기쁘다, 짜릿하다, 다행이다. 뿌듯하다. 감사하다 느끼며 서로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정다운 전도사

한주간 말씀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 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 이사야서 62장 2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정태일 목사

찬송 : 210장 87장 216장

기도 :

성경 : 이사야 66:10-13, 히 1:1-4

제목 : 이사야서의 결론, 히브리서의 서론

1. 이사야서의 결론 :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기뻐하여라

- 1)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기뻐하여라.
- 2) 왜냐하면, 젖을 빨며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 3) 회개와 회복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신앙공동체의 삶을 회복하라.
(개인의 삶에서. 가정의 삶에서. 교회의 삶에서)

2. 히브리서의 서론 :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 1)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 2)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계시자이다.
- 3) 박해와 혼란 중에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져라.
그리스도는 거룩한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는 유일한 대속의 구주이시다.
그리스도는 어떤 지위보다도 우월하신 존재이시다.

축산항의 추억

비움사랑방 공동체생활은 늘 즐거운 여행 같다. 작년엔 여름공동체생활 중에 충남 공주 채영대 집사님 댁으로 방공동체 생활을 떠났는데, 올해는 지난 5월 24일과 25일 1박 2일 일정으로 포항과 영덕에 다녀왔다. 정재훈 목사님께서 포항 출신이기도 하고, 목사님 사촌형님께서 하시는 민박집이 영덕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공동체생활을 결행한 것이다.

“공동체생활, 맛있는 거 먹고 즐거운 시간 가집시다”라고 하신 홍삼성 장로님의 말씀에 따라 정말 즐겁게 다녀왔다. 물론 정재훈 목사님께서 교회 봉고차를 운전하는 수고를 해주신 덕분이다. 첫날 아침 9시에 서울 장로님 댁에 모여 교회 봉고차를 타고 출발했다. 모두 10명. 방 회계 정혜옥 집사님께서 알차게 준비해오신 간식 덕분에 여행길이 즐거웠다. 채영대 집사님과 장지영 권사님도 공주에서 출발했다.

점심은 포항의 명물 물회를 먹었다. 식사 자리에 목사님 부모님께서 함께하셨는데,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신 마음이 전해졌다. 영덕 숙소에 가기 전에 호미곶 해맞이광장,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를 찾았다. 특히 호랑이 꼬리처럼 튀어나온 호미곶은 해맞이 명소로, 바다를 뚫고 솟은 사람 손 조각이 명물이다. 단체 사진을 찍으니 다들 포토제닉이다.

저녁 무렵 아름다운 오션뷰 숙소 축산항민박에 도착했다. 모두 바비큐를 비롯한 풍성한 식탁을 준비하기 위해 바빠 움직였다. 테라스에 마련된 식탁에서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있는데, 목사님 사촌형님 내외분이 오셔서 문어를 전해주셨다. 깨끗한 숙소에 특산물까지 따듯한 마음이 느껴졌다. 식사 후 조명이 다채로운 다리를 건너 산책을 다녀와서는 늦게까지 찬양과 말씀,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었다.

다음 날 권사님들께서 준비하신 특별한 아침을 먹고, 해파랑길을 따라 해안 풍경과 등대를 구경했다. 맨발로 백사장의 모래를 밟으며 반대편 기암괴석과 해안 탐험에도 나섰다. 점심으로 맛있는 도다리회 무침을 즐겼고, 아쉽게 못 온 방식구들을 위해 도다리를 샀다.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메타세콰이어숲에 들러 잠시 힐링하는 시간도 가졌다. 물론 방공동체생활 자체가 우리 영혼을 힐링하는 시간이었다.

비움사랑방 이충환 집사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예배의 찬송
- *기원의 기도
- *기원찬송

갈라디아서 5 : 1 인도자
68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참회의 기도
- *용서의 말씀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마가복음 2 : 5 인도자
417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사무엘상 8 : 1-10, 18-22 설교자
545 새싹사랑방
“ 온전한 신뢰 ” 정재훈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봉헌기도
- *영광찬송
- *위탁의 말씀
- *강복기도

설교자
543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김중필 이현숙 / 봉헌위원 : 전향옥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예배

공동기도문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저희의 왕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답게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전한 신뢰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길을 벗어나서 돈벌이와 뇌물과 판결을 굽게 하는 것을 보고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물려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사무엘은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위로하십니다.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어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되 그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자세히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싸움을 위한 왕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과 다스림 때문에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은 고유한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싸움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을 때 감사가 넘칩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정영옥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꾸러기들이 매년 가장 좋았던 일로 뽑는 1위! 아빠와 함께 캠프가 찾아왔습니다. 지난 수요일 오후 4시30분부터 아빠들과 꾸러기들이 힘을 모아 텐트를 쳤습니다. 텐트를 다 치면 캠프 준비 끝! 교장선생님의 기도와 함께 힘차게 캠프를 시작했습니다. 캠프의 첫 일정은 저녁 식사였습니다. 가정 별로 저녁밥을 만들고 한 식탁에 모여 다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어묵탕, 볶음밥, 샐러드, 떡꼬치 등 다양한 메뉴가 나왔습니다. 다 맛있었지만 서로 넉넉히 나눠주려고 많이 만든 바람에 다 먹지는 못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다함께 신나는 장기자랑과 공동체놀이를 했습니다. 멋진 모습도 뽐내고, 아빠와 아이들이 땀이 날 정도로 뜨거운 열기로 신나게 놀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은 체조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가지도 넘는 재료를 같이 준비해서 다 함께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배가 볼록 나온 사람이 많았습니다. 다 먹은 후 모든 짐을 정리하고 소풍길을 따라 무지랭이에 갔습니다. 가서 댐도 만들고, 나뭇잎 배도 만들고, 개미와 뒷다리가 나온 올챙이 보며 재밌게 놀았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민락동에서 맛있는 외식을 하고, 학교로 돌아와 수료증 수여를 함으로 아빠와 함께 캠프를 마쳤습니다. 끝나고 다들 피곤해 했지만 너무나도 뜨겁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 교사 : 이어람 >

어린이학교

이번주에는 중간에 휴일이 있어서 그런지 한 주가 더 빨리 지나갑니다. 멋쟁이학교 선배들이 여행을 떠난 학교는 고요했고 귀여운 꾸러기 동생들이 아빠캠프를 준비하는 모습에 어린이들도 덩달아 설레기도 했던 한 주였습니다.

사랑방공동체학교는 여행이 자주 있습니다. 멋쟁이나 꾸러기가 여행을 떠나면 어린이들은 월요일 예배시간이나 아침 여는 모임 시간, 점심 식사시간 등 함께 기도드리는 시간에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이런 시간과 경험을 통해서 함께 살고 있는 것이 얼마

나 큰 힘이 되는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배워갑니다.

이번주에는 어린이학교가 에버랜드와 캐리비안베이로 1박2일 여행을 떠납니다. 잘 만들어진 놀이동산에서 즐기다 오면 되는 여행 같지만 참여하는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여행이 되기 위해선 준비하는 사람들의 섬세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친 어린이와 몸이 아픈 어린이가 있어서 함께 가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도 있고, 어린이들의 아버지 두 분도 함께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한 마음도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선물같은 시간이 되도록 함께 해주시는 기도의 힘으로 잘 다녀오겠습니다.

< 교사 : 정다운 >

멋쟁이학교

6월이 시작되면서 온도만 오른 것이 아니라, 멋쟁이들의 마음도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번 주에는 다들 그렇게 기다리던 학년별여행을 떠났습니다. 1학년은 가평으로, 2학년은 인천으로, 3학년은 부산으로(+자전거), 5학년도 부산으로, 6학년은 6월 모의고사와 함께 보냈습니다. 각양각색의 경험들을 한껏 즐기면서도, 무탈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학년끼리만 떠나는 여행은 인생에 길이 남을 기억을 만들어주며, 그 자체로도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는 여행입니다. 이 여행을 통해서 멋쟁이들은 갈등을 겪기도 하고, 가치관의 차이를 느끼면서 서로를 더 잘 알게 되고, 마음이 합하는 기쁨도 맛보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지도 배우게 됩니다. 이런 시간들이 쌓이다보면, 어느샌가 없앨래야 없앨 수가 없는 인연이 완성됩니다.

이번 목요일에는 미국에서 최기찬 교감선생님과 4학년 멋쟁이들이 귀국하였습니다. 그동안 멋진 시간들을 보냈는지,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많은 멋쟁이들은 4학년이 어서 보고 싶어서 안달난 모습들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경험들을 다음 목요일 열린수업에, [여행 보고회]를 통해서 다른 멋쟁이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여행 마무리는 곧 학기 마무리와도 연결이 됩니다. 여행과 피드백 시간을 통하여 배운 것들을 잘 간직하는 멋쟁이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와 수고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교사 : 이어진 >

잡초

무림리에 살면 자연과 가까이 지내며 자연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시간에 따라 변화게 하시는데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지금은 하루가 무섭게 풀과 잎이 싹싹 자라며 울창한 초록빛 세상이 되었습니다. 싱그러움과 생명력이 느껴지는 자연을 보면 몇 달 전까지 있던 겨울의 향량함은 온대간대 없습니다. 순식간에 변하는 자연의 신비함과 위대함은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은 멋지고 좋지만 힘든 것들도 있습니다. 요즘 저를 힘들게 하는 건 정말 질리게 올라오는, 바로 잡초입니다. 이 잡초는 뽑고, 뽑고, 뽑아도 끝도 없이 올라옵니다. 민둥산처럼 싹 밀어도 하루면 다시 그 자리에 다른 잡초가 올라옵니다. 꾸러기 밭에 딸기가 심겨져있는데 그 딸기잎 안쪽에 구별하기도 어렵게 섞인 잡초들은 참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그럼 잡초만 올라오냐? 아닙니다. 저의 짜증도 같이 올라옵니다. 쭈구려 앉아서 뽑는데 저는 금방 다리가 저려서 오래 뽑기도 힘들고, 뿌리 깊은 잡초들은 잘 뽑히지도 않습니다. 그 조그만 꾸러기 밭에서 애들과 놀기 전에 잠깐 잡초를 뽑는데도 저는 그게 참 힘들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좋다고 하셨는데 잡초의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더위와 추위, 모기, 파리 그리고 잡초, 이것들은 좋다고 하신 이유를 몇 년째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질문은 하지만 답을 몰라서 그래서 그냥 잘 안 맞게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잡초 같습니다. 함께 하기 힘들어서 해를 가하거나 받기도 하지만 끝까지 버티면서 사는 게 잡초의 강인함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는 이유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모였지만 서로 다른 사람들과 살면서 어려움을 많이 갖습니다. 심하면 이해와 노력으로도 어쩔 수 없이 헤어짐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럴 때는 잡초 같이 끝까지 살아남으면서 버티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루터기사랑방 이어람 집사

<수요 청오기도회>

인 도 : 정다운 전도사

찬 송 : 365장, 438장

성 경 : 히브리서 10장 23절~25절

말 씬 : 서로 격려하십시오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라오스의 기독교인들을 위해>

중국의 종교정책 영향으로 허가받지 않은 각 교회들은 마을로 흩어지고 있으며,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직장도, 병원도, 학교도 다니기 어려운 핍박 가운데 있는 라오스의 기독교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주님의 가족 공동체를 위해>

이번주 토요일, 공동체에서 만난 두 청년의 결혼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복된 결혼식이 되게 하시고 결혼하는 가정을 통해 계획하신 '주님의 가족 공동체'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

1) 여행 중에 있는 공동체학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 몸과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생활공동체 소식>

꾸러기학교 아빠캠프와 멧쟁이학교 학년별 여행에 손이 필요할 때마다 공동식구들이 여러모로 도와주셨습니다.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밭일은 새벽에 해야 하고, 농작물이 풍성해지면서 하늘주방 식구들은 농작물 수확까지 손수해서 공동식사를 마련해주십니다. 밭에도 손이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남자분들은 장마시작 전 여러곳을 손보기 위해 바빠지실 예정입니다.

< 장영미 전도사 >